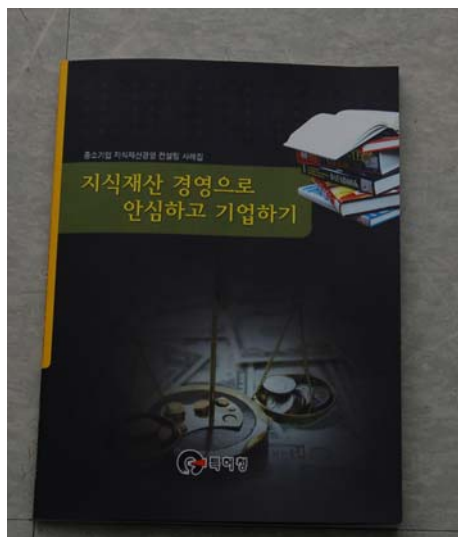


특허청,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집 발간

특허기술 유출, 생산제품의 특허권 미등록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특허청 심사관들의 컨설팅 사례집이 발간됐다.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관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경영 지원팀은 2006년 9월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으로 발족한 이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135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과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중소기업 8사의 이야기를 엮은 사례집 <지식재산 경영으로 안심하고 기업하기>을 펴냈다.

8사의 사례는 기업의 업종, 규모에서부터 특허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내용까지 다양하지만 특허청 심사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 결과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자기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에 참여한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기업 오너(CEO)의 특허 경영 의지가 컨설팅의 성과를 높이고 기업경영을 성공으로 이끈다”며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8/03/06>